

한방병원 종사자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실태, 지식, 태도 및 수행자신감

유수정¹, 강인순^{2‡}

¹부산대학교병원, ²부산대학교 간호대학

The Oriental Medicine Hospital Staff's Educational Status, Knowledge, Attitudes, and Self-Confidence in Performing CPR

Su-Jeong Yu¹, In-Sun Gang^{2‡}

¹*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²*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termine oriental hospital staffs' education status, their knowledge, overall attitudes and self-confidence in conducting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and how those factors influence their performance of CPR. This research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1st to 15th in 2014 and involved 104 participants who worked at P Oriental Hospital at Y city, and well-structured surveys were used throughout the research. The collected data underwent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by the SPSS WIN 19.0 program. The results revealed the staffs' knowledge of CPR ($r=.27$, $p=.007$), attitude ($r=.42$, $p=.001$), and confidence in conducting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r=.48$, $p=.001$), which indicates all the factors are positively correlated. In conclusion, as the knowledge of CPR increased, CPR attitude and CPR performance confidence increased. We also found that a positive attitude toward CPR increases CPR performance confidence. Therefore, education in CPR should be included in workplaces. Through education, CPR performance and performance confidence can be reinforced at the time of emergency.

Key Words : Oriental Medicine, CPR, Knowledge, Attitudes, Self-Confidence

‡ Corresponding author : In-Sun Gang(nursing@pusan.ac.kr)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 Received : Oct 6, 2014 • Revised : Nov 27, 2014 • Accepted : Dec 2, 201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복잡한 도시 생활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건전한 생활습관 등으로 질병 구조는 점차 다양화되고 만성화 되어가고 있으며,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 증가는 의료 소비의 고급화를 유발시켜 보완대체의학 및 전통 의학 등 의료수요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었다[1][2][3]. 특히 양·한방병원에 입원하는 노인환자는 관절염, 척추질환, 뇌졸중 등 만성퇴행성질환의 유병률이 높고, 질환의 이환기간이 길어 건강유지 증진 및 증상완화를 위해 보완대체요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4]. 한방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공단(2014)에 등록된 한방 의료기관은 한방병원 219개소, 한의원 13,381개소로 전체 의료기관의 20.8%를 차지하고 있으며[5],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방 의료기관 이용실태 분석 결과 한의원 이용률은 76.1%, 한방병원 21.1%로 나타났다[6]. 한방 의료기관은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중풍, 편마비, 구안와사를 비롯한 뇌혈관질환을 가진 50대 이상의 고위험 환자들의 내원과 입원이 많으므로 다른 공공장소보다 응급상황이나 갑작스런 심정지 발생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4][7][8].

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즉각적으로 행해지는 소생술로서 뇌 손상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심장기능과 호흡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 술기를 말한다[9]. 대한심폐소생 협회에 따르면 심정지는 대개 갑자기 발생하고, 발생 후 4~6분 내에 뇌 손상을 입기 때문에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최초 목격자의 빠른 판단에 따른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아주 중요하다고 하였다[10]. 그러나 응급상황에서 최초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행이 미흡한 것은 심정지 상황의 인식과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심폐소생술 시행의 두려움과 감염의 우려 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대상자들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고 태도를 긍정적으로 만들며 심폐소생술 술기 시행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온다[11]. 그러나 대부분의 한방의료기관은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전략을 추구하고 있지만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방병원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직장 내 직무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응급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응급의료체계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하며[12], 이를 통해 심정지 상황을 목격했을 때 희생자들을 도울 수 있는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향상과 수행자신감을 강화시켜야하겠다.

그 동안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수행능력 및 자신감과 관련하여 진행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그 대상자가 의료인[13][14][15]에서 일반인[16][17][18]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급·만성질환 위주의 양방진료와 차별화 된 형태를 띠는 만성 퇴행성 질환 중심의 한방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폐소생술 관련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한방병원 종사자들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실태와 지식, 태도 및 수행자신감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직장 내 심폐소생술의 효과적인 교육 접근을 통한 심폐소생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향후 심정지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방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실태, 지식, 태도 및 수행자신감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심폐소생술 교육실태를 확인한다.
- 2) 대상자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자신감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심폐소생술 교육실태에 따른 심폐소생술의 지식, 태도 및 수행자신감의 차이를 확인한다.
- 4) 대상자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자신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심폐소생술의 수행 자신감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은 Y시에 소재한 P한방병원만을 표집하였기 때문에 전체 한방병원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주관적인 답변이 있어 연구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한방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실태, 지식, 태도 및 수행자신감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

지 Y시에 소재한 P한방병원에 근무하는 병원 직원 121명 중 설문지 조사를 거부하였거나 응답이 불충분하였던 17명을 제외한 10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과 원무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에 근무하는 비 의료진을 모두 포함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먼저 부산대학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의면제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으며(IRB 번호: E-2014109), P한방병원 교육연구실에 연구의 목적과 내용, 자료수집 방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 연령, 결혼유무, 학력, 직업, 경력(월)의 6문항, 심폐소생술 교육실태는 심폐소생술 교육유무, 교육방법, 수행정도에 관한 3문항,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13문항, 태도 10문항, 수행자신감 12문항으로 총 4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1)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은 심폐소생술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의미하며 심폐소생술 지식측정을 위해 Cho [13]가 사용한 도구 23문항 중 13문항을 AHA BLS 2011 new guideline을 토대로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가능한 점수범위는 0~13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폐소생술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된 도구는 응급의학과 교수 2인, 응급 전문 간호사이면서 BLS instructor와 ACLS provider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임상간호사 3인 총 5인의 전문가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2)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는 심폐소생술을 수행하는 것에 관한 느낌이자 감정들에 대한 태도로서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Cho[19]가 개발한 '기본소생술 태도의 감정적 요소'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도구의 내용은 '내가 심정지 환자에게 기본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은?'에 대한 응답으로 ① 좋다-나쁘다 ② 이롭다-해롭다 ③ 불필요하다-필요하다 ④ 유용하지 않다-유용하다 ⑤ 중요하다-중요하지 않다 ⑥ 두렵지 않다-두렵다 ⑦ 긴장된다-긴장되지 않는다 ⑧ 불안하다-불안하지 않다 ⑨ 좌절감을 느끼지 않는다-좌절감을 느낀다 ⑩ 스트레스를 받는다-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로 이루어진 semantic differential type scale 10문항이며, 각 문항의 배열은 고정선택을 줄이기 위해서 다섯 개의 문항을 역순으로 배열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대체로, 약간(긍정적), 보통, 약간, 대체로, 매우(부정적)'의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가장 긍정적 문항은 7점, 가장 부정적 문항은 1점으로 가능한 점수범위는 7~7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ho[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6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7$ 이었다.

3) 심폐소생술에 대한 수행자신감

심폐소생술에 대한 수행자신감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판단능력으로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며, Park[20]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구체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자신이 없다' 0점에서 '매우 자신 있다' 10점까지로 가능한 점수범위는 0~1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폐소생술에 대한 수행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9$ 이었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일반적 특성과 심폐소생술 교육 실태에 따른 심폐소생술의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 차이 분석은 t-test,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2) 대상자의 심폐소생술의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3)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성별은 여자가 53.8%(56명), 남자가 46.2%(48명), 평균 연령은 37.86세로 나타났으며, 최종학력은 대학교 이상이 57.7%(60명)으로 나타났다. 직종은 한의사 35.6%(37명), 간호사 6.7%(7명), 비의료진 57.7%(60명)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경력은 평균 70.8개월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 교육여부는 '예'라고 답한 경우가 86.5%(90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교육 방법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경우가 90.0%(81명)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 수행정도는 '중'이 40.0%(36명)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심폐소생술 교육실태에 따른 심폐소생술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을 분석한 결과, 심폐소생술 지식은 연구대상자의 연령($F=10.57, p<.001$), 결혼($t=3.00, p=.003$), 학력($F=5.37, p<.001$), 직업($t=5.89, p<.001$), 심폐소생술 교육여부($t=4.66, p<.001$)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

다. 연령의 경우, Scheffe의 사후검정에 따른 결과는 40세 이상의 지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는 미혼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은 대졸이상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의사, 간호사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났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심폐소생술 태도는 성별($t=2.74$, $p=.007$), 직업($t=3.14$, $p=.002$), 경력($F=7.05$, $p<.001$)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다.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 간호사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경력에 따른 차이는 Scheffe의 사후검정

결과, 1년 미만과 5년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의 경우, 학력($t=-3.63$, $p<.001$), 직업($t=6.47$, $p<.001$), 경력($F=6.95$, $p<.001$), 심폐소생술 교육여부($t=2.61$, $p=.010$), 심폐소생술 수행정도($F=5.26$, $p=.007$)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의사, 간호사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경력의 경우, Scheffe의 사후검정 결과, 5년 이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우 더 높게 나타났으며, 수행정도는 Scheffe의 사후검정 결과, 상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ifference in knowledge, attitude, and confidence regarding CPR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04)

Categories	n (%)	Knowledge			Attitudes			Self-confidence				
		Mean±SD	t/F (p)	Scheffe	Mean±SD	t/F (p)	Scheffe	Mean±SD	t/F (p)	Scheffe		
Gender	male	48 (46.2)	8.38±2.31	- .85 (.397)	51.35±9.53	2.74 (.007)		77.27±19.74	1.10 (.272)			
	female	56 (53.8)	8.75±2.18								46.64±8.03	**
Age(yr)	~29 ^a	34 (32.7)	8.94±1.89	10.57 (.000) ***	c<a, b	49.66±7.96	1.20 (.338)	70.47±17.12	1.81 (.168)			
	30~39 ^b	35 (33.7)	9.49±1.96								46.94±7.47	
	40~ ^c	35 (33.7)	7.31±2.29								49.80±11.13	75.60±21.60
Marital status	Unmarried	52 (50.0)	9.21±1.77	3.00 (.003) **	47.19±7.01	-1.86 (.066)	72.33±15.88	-1.49 (.139)				
	Married	52 (50.0)	7.94±2.48							50.44±10.48	77.81±21.23	
education	High School	21 (20.2)	6.19±2.42	25.81 (.000) **	49.70±8.79	4.72 (.011) *	72.65±13.71	8.71 (.000) ***				
	Junior college	23 (22.1)	8.30±1.92							43.62±8.08	62.19±15.22	
	Over University Graduate school	6 (57.7)	9.52±1.56							50.30±8.89	80.50±19.52	
Occupations	Oriental doctor · Nurse	44 (42.3)	9.89±1.60	5.89 (.000) ***	51.93±8.72	3.14 (.002) **	86.89±17.04	6.47 (.000) ***				
	Except for medical team	60 (57.7)	7.62±2.16							46.53±8.61	66.40±15.12	
Employment history (month)	<12 ^a	18 (17.3)	8.17±1.79	1.20 (.314)	49.11±9.23	7.05 (.000) ***	a, b, c <d	68.39±13.13	a, b, c <d			
	12~36 ^b	33 (31.7)	8.67±2.38							45.30±6.81	70.55±16.16	6.95 (.000) ***
	37~60 ^c	22 (21.2)	8.05±2.46							46.23±6.65	70.55±17.87	***
	>60 ^d	31 (29.8)	9.10±2.12							54.23±10.09	86.97±20.26	
CPR experience	Yes	90 (86.5)	8.94±2.02	4.66 (.000) ***	48.98±8.55	.46 (.648)	76.92±18.98	2.61 (.010) *				
	No	14 (13.5)	6.21±2.15							47.79±11.98	63.14±13.21	
CPR Training Methods	Theory and Practice	81 (90.0)	9.07±1.95	1.85 (.068)	48.90±8.69	-.25 (.800)	78.07±19.13	1.75 (.084)				
	Theory or practice	9 (10.0)	7.78±2.44							49.67±7.48	66.56±14.66	
CPR Performance levels	High ^a	28 (31.1)	9.36±2.42	1.34 (.268)	50.75±10.03	1.98 (.144)	75.75±20.16	5.26 (.007) **	c<a, b			
	Medium ^b	36 (40.0)	8.97±1.80							49.07±6.36	85.32±15.95	
	Low ^c	26 (28.9)	8.46±1.82							46.42±8.02	69.50±17.32	

*: p<0.05, **: p<0.01, ***:p<0.001
CPR :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2.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자신감

본 연구대상자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자신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의 평균은 8.58(2.24)점, 태도의 평균은 48.81(9.02)점, 수행자신감의 평균은 75.07(18.86)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CPR Knowledge, Attitudes, and Self-confidence (n=104)

Categories	Mean±SD	Min	Max	Range
Knowledge	8.58±2.24	2	13	0~13
Attitudes	48.81±9.02	27	70	7~70
Self-confidence	75.07±18.86	29	120	12~120

3. 심폐소생술에 대한 수행자신감 영향요인

연구대상자의 심폐소생술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일반적인 특성만을 고려한 모형1에서는 VIF값은 1.258~1.997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D-W값이 1.435으로 다소 작게 나타났다. 수정된 설명력은 33.4%로 나타났으며 F값은 9.597로

유의한 모형을 나타내었다. 회귀계수는 직업($\beta = -.36, p = .002$)과 수행정도($\beta = .25, p = .022$), 경력($\beta = .29, p = .013$)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의사, 간호사를 참조변수로 설정한 경우, 회귀계수값이 음으로 나타나 의사, 간호사의 자신감이 높고, 수행정도는 '하'를 참조변수로 설정한 경우, 상에서 유의한 양의 계수를 나타내어, '하'와 비교하였을 때, '상'의 자신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경력은 회귀계수가 양의 계수로 나타나 경력이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에서 심폐소생술 지식, 심폐소생술 태도를 추가한 모형2는 VIF값은 1.319~2.154로 안정되었고 Durbin-Watson값도 1.543으로 더 좋게 나타났다. 설명력은 42.6%로 크게 높아졌고 F값은 10.55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회귀계수에서는 여전히 직업($\beta = -.26, p = .020$)과 수행정도($\beta = .21, p = .030$)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추가적으로 심폐소생술 태도($\beta = .30, p < .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직업과 수행정도의 결론은 차이가 없으며 심폐소생술 태도의 회귀계수가 양의 계수로 나타나 태도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력의 유의성이 사라져, 실제 경력보다는 심폐소생술 태도가 자신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Influencing Factors on CPR Self-confidence (n=104)

Categories	Variables	Model I			Model II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74.40 (6.12)		12.15 (.000)	34.74 (11.214)		3.10 (.003)
education	Junior college	6.45 (4.68)	.143	1.38 (.171)	1.02 (4.712)	.02	.22 (.830)
	Over University Graduate school	4.38 (4.91)	.115	.89 (.374)	-.57 (4.984)	-.02	-.12 (.909)
Occupations	Except for medical team	-13.50 (4.32)	-.355	-3.13 (.002)**	-9.85 (4.162)	-.26	-2.37 (.020)*
CPR experience	No	-.77 (5.52)	-.014	-.14 (.890)	.32 (5.294)	.01	.060 (.953)
CPR Performance levels	Medium	3.90 (4.03)	.099	.97 (.335)	1.13 (3.797)	.03	.30 (.766)
	High	10.322 (4.421)	.244	2.34 (.022)*	9.06 (4.125)	.21	2.20 (.030)*
Emplorment history (month)		.058 (.023)	.228	2.522 (.013)*	.038 (.023)	.15	1.65 (.101)
CPR Knowledg					1.29 (.811)	.15	1.59 (.115)
CPR Attitudes					.62 (.179)	.30	3.47 (.001)**
VIF		1.258~1.997			1.319~2.154		
D-W		1.44			1.54		
Adjusted R-Square		.33			.426		
F(p)		9.60(.000)***			10.55(.000)***		

Reference : Education: High School, Occupations: Oriental doctor and Nurse, CPR experience : Yes, CPR Performance levels: Low
 *: p<0.05, **: p<0.01

IV. 고찰 및 결론

1. 고찰

본 연구는 한방병원 종사자들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실태와 지식, 태도 및 수행자신감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직장 내 심폐소생술의 효과적인 교육 접근을 통한 심폐소생술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향후 심정지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여부는 경험이 있

는 경우가 86.5%로 나타났고, 대부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90.0%)이었으나 만약 실제로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된다면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응답은 중간수준(40.0%)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양방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Lee & Sung[14]의 연구에서 심폐소생술 교육경험은 97.2%로 나타나 이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병원 정책상 직원들의 필수교육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학부과정에서도 상당 수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어 교육경험 여부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심폐소생술 경험이 있으나 수행자신감이 비교적 보통수준으로 나타나 보다 지속적이고 효

올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은 13점 만점에 8.58점, 태도는 70점 만점에 48.81점, 수행자신감은 120점 만점에 75.07점으로 나타났는데 Lee & Sung[14]의 연구에서 지식은 20점 만점에 14.97점, Cho[19]의 연구에서 20점 만점에 12.6점으로 나온 결과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며, 태도는 Lee & Sung[14]의 연구에서 총 55점 만점에 37.02점, Park et al.[21]의 연구에서 70점으로 환산 시 54.04점으로 나타나 이와 비교하면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수행자신감은 지식,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Hwang[17]의 연구에서 120점 만점에 평균 80.10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21]의 연구에서 97.75점과 비교하면 역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이 증가할수록, 심폐소생술의 태도와 수행자신감은 증가하고, 심폐소생술의 태도가 긍정적인수록 심폐소생술의 수행자신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wang[17]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으나, Lee & Sung[14]의 연구에서는 지식과 태도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걸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심정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항상 심폐소생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22], 심폐소생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건강을 위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혀 습관화해야 할 것이다 [23].

연구대상자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 직업, 수행정도, 경력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료인의 경우 수행자신감이 높고, 수행정도가 높을수록 수행자신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경력이 높을수록 수행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정된

설명력은 33.4%이었다. 심폐소생술 지식, 심폐소생술 태도를 추가했을 때 설명력은 42.6%로 높아졌으며 여전히 직업과 수행정도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추가적으로 심폐소생술 태도가 유의하게 나타나 자신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Jung et al.[22]의 연구에 의하면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감, 성별,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성격, 전공에 대한 생각, 심폐소생술 교육경험, 의료봉사경험, 전공 선택동기가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으며 설명력은 4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수행자신감에 심폐소생술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Jung et al.[22]의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를 고려하여 학부과정에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한방병원 종사자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자신감에 있어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병원이란 장소는 그 질환이 급성이든 만성이든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방병원은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중풍, 편마비, 구안와사를 비롯한 뇌혈관질환을 가진 50대 이상의 고위험 환자들의 내원과 입원이 많으므로 갑작스런 심정지 발생은 더욱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임상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긍정적인 태도를 통한 수행자신감을 강화시켜 응급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인 태도와 역량을 갖춘 인재로서 희생자들을 도울 수 있는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2. 결론

본 연구는 한방병원 종사자들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실태와 지식, 태도 및 수행자신감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직장 내 심폐소생술의 효과적인 교육 접근을 통한 심폐소생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향후 심정지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이 증가할수록, 심폐소생술의 태도와 수행자신감은 증가하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심폐소생술의 수행자신감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심폐소생술의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직업, 수행정도, 경력과 함께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기회를 확대시켜 나가야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통한 수행자신감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일개 한방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뤄져 일반화 할 수 없으나 지금까지 수행된 대다수의 양방병원 직원 및 일반인 교육과 달리 한방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정도를 파악한 연구결과이며, 추후 한의학의과대학생, 한방병원 및 한의원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인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1. M.J. Park, B.M. Lim, W.S. Cha, M.S. You(2014), Institutional Analysis on Organizational Changes of Korean Medicin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Med*, Vol.35(1);145-156.
2. S.J. Kim, S.M. Kwon, M.S. You(2011), An Institutional and Ecological Analysis of the Healthcare Environment in Korea: Focus on Institutional Logics, Actors, and Governance structures *Korean Journal of Health policy & Administration*, Vol.21(3);457-492.
3. G. Can, O. Erol, A. Aydinler, E. Topuz(2009), Quality of life an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use among cancer patients in Turkey, *European Journal of Oncology Nursing*, Vol.13(4);287-294.
4. S.B. Seu(2007),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the Use of the Complementary Alternative Therapy of the elderly patients in combined of western-oriental treatment hospita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pp.25-65.
5.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HIRA4B&vw_cd=MT_OITITLE&list_id=354_MT_DTITITLE&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
6. H.C. Jung(2014), Nationwide Study on the Usages and Characteristics of Patients Visiting Korean Medical Facilities by Sex,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pp.5-17.
7. H.J. So, J.H. Ryu, Y.C. Kim, B.J. Lee(2007), Clinical Analysis of Patients Who Visited the Emergency Room of an Oriental Medical Center, *J Korean Oriental Med* Vol.28(3);197-206.
8. S.J. Yu, I.S. Gang(2014),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ocess of Hospital Visi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Visiting to Emergency Medical Center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8(1);27-39.
9. <http://ko.wikipedia.org/wiki/%EC%8B%AC%ED%8F%90%EC%86%8C%EC%83%9D%EC%88%A0>
10. <http://www.kacpr.org/cpr/>
11. M.H. Lee(2005), The Effect of CPR Training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 of Laypers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p.14-24.
12. B.K. Kanstad, S.Aa. Nilsen, K. Fredriksen(2011), CPR knowledge and attitude to performing bystander CPR among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Norway, *journal*, www.elsevier.com/locate/

- resuscitation;1053-1059.
13. H.S. Cho(2013), Relationship betwee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knowledge, professional attitude, and job performance: a descriptive analysis of medium-to small-sized hospit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 pp.1-58
 14. J.H. Lee, M.H. Sung(2013), Factors Influencing Performance Ability of CPR of Hospital Staff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19(2);93-103.
 16. M.H. Lee, S.H. Choi, M.J. Park(2007), Effect of CPR Training for Lay Trainees on their Knowledge and Attitudes, J Koeran Acad Fundam Nurs, Vol.14(2);198-203.
 17. S.H. Hwang(2014), Knowledge, attitude, confidence, and experiences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regarding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J Med Ser Vol.18(1);55-66.
 18. G.H. Sin(2009), Performance Ability after CPR Education of the ground workers in an airpor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Vol.13(3);29-40.
 19. H.Y. Cho(2008), Analysis of Nurses' Attitude toward Basic Life Support and Influencing Fa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pp.1-68.
 20. J.M. Park(2006), The effectiveness of competency and retention i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through self-directed lear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p.1-75.
 21. H.S. Kim, M.S. Kim, M.H. Park(2009),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 and Ability to Perform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J Koeran Acad Fundam Nurs, Vol.16(4);430-437.
 - 22 G.S. Jung, H.M. Oh, S.Y. Jeong(2013), The Influential Factors for the Attitude of Health-Care University Students o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5);2271-2280.
 - 23 S.H. Kim(2006), Plan for Activation of CPR by Laypersons-Centered on training and leg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pp.1-88.